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EBRD의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전략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EBRD의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전략 1

국제금융시장 3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EBRD의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전략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현진 (maxnlio@kdb.co.kr)

- ◆ EBRD는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2021-2025'을 통해 ①디지털 생태계 기반 마련, ②고객·정부의 디지털 적응 지원, ③혁신·신시장 창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
- ◆ EBRD는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대외협력을 공고히 하고, 내부 점검 프로세스도 확충하는 등 대내외적 기반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

□ 유럽부흥개발은행*(이하 EBRD)는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1.11월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2021-2025'**을 발표

-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91년 설립된 다자간개발은행으로,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 등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을 전제로 중동부 유럽국가의 개발금융 지원
- * The EBRD's approach to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ition 2021-2025 : '20.10월 발표한 EBRD의 중장기 경영전략(Strategic Capital Framework) 상 디지털 전환 관련 후속 전략

○ 최근 EBRD의 주요 투자대상인 스마트시티 등 지속가능 인프라와 함께 금융기관 및 산업·상거래·농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EBRD의 디지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

-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지속가능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적인 밸류체인도 변화하는 추세
- 특히 디지털 전환은 기존 EBRD의 핵심 추진과제인 저탄소 전환 및 기회의 평등*과 연계되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시키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

○ 동 보고서는 향후 5년간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EBRD의 역할과 대내외 추진방향을 제시

- 민간분야 투자 및 자문 경험과 공공분야 정책 관여도 등을 감안시 EBRD는 민간과 공공의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가능
- 또한 EBRD는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카데미 운영 등 내부직원 육성과 함께 외부 전문가 유입도 병행할 예정

□ EBRD는 ①디지털 생태계 기반 마련, ②고객 및 정부의 디지털 적응 지원, ③혁신과 신시장 창출 등 세 측면에서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

-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제도 마련을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기술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
 - 특히 원거리 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광대역 인프라 조성 및 소외계층 대상의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한편 금융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EBRD의 다년간 투자계획(Multi-annual Investment Plan) 및 모든 투자활동에 사이버보안 관련 리스크를 반영
 - 둘째, 민간·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직접투자 및 자문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
 - EBRD는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효과가 큰 다국적기업 및 지역기업의 디지털 기술 투자를 지원하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객접근성을 확대
 - 또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도 제고
 -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
 - EBRD는 위험자본의 투입, 샌드박스 등 규제환경의 완화를 강조하며 스타트업 대상의 벤처 프로그램* 확충 및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지원계획을 명시
- * Star Venture Program :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라루스 등 30개국에 소재하는 연간 매출액 1백만 유로 이하,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문 서비스 및 벤처투자 플랫폼 제공

□ EBRD는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 등 대외관계 형성과 함께 내부 점검 프로세스도 병행할 예정

- EBRD는 타 다자간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해 협력을 지속
 - 특히 EU의 RRF*를 활용함으로써 EBRD 회원국인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등에 약 27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 팬데믹의 극복 및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1~'26년중 운영되는 EU내 한시적 기구로 3,125억유로의 보조금과 3,600억유로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성
- EBRD가 투자한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디케이터 등 내부 점검 프로세스도 마련
 -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및 역량의 향상 여부, ICT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규제환경의 개선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
 - '22.1월 EBRD 내부에 디지털 관련 업무 조율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허브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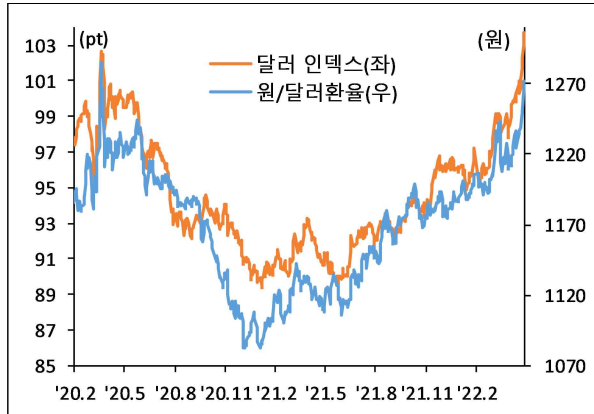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4월 동향 및 5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천 경 원 (cheonkw@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4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인사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예고와 엔화, 위안화 등의 약세 여파로 상승, 5월에는 연준의 긴축통화정책,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금리)** 4월 주요국 장기금리는 통화긴축 강화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5월에는 미 연준의 빅스텝 실현 가능성에 따라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
 - ◆ **(주가)** 4월 주요국 증시는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 등에 따른 등락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주요국의 긴축 및 경기 방향성 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
- **(환율)** 4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인사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예고와 엔화, 위안화 등의 약세 여파로 상승, 5월에는 연준의 긴축통화정책,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동향)** 연준 인사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예고, 주요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달러인덱스*가 코로나19 발생 초기('20.3월) 최고치인 102.69를 돌파하여 장중 103.68(4.28일)을 기록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파월 연준의장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향후 3번의 50bp 금리인상 기대에 대해 시장이 대체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준 인사들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예고
 - 유로화는 연준에 비해 완화적이었던 ECB의 통화정책회의(4.14일), 러시아의 폴란드와 불가리아로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약세
 - 위안화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지역 봉쇄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수출 지연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내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유출* 등으로 약세 시현
 - * 중국 시장 자금흐름(백만달러, IIF집계) : 2월 주식 +654, 채권 +3,845 → 3월 주식 △6,278, 채권 △11,236
 - 엔화는 '21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고수 등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4.28일 장중 130엔을 돌파(20년 만에 최고치)하는 등 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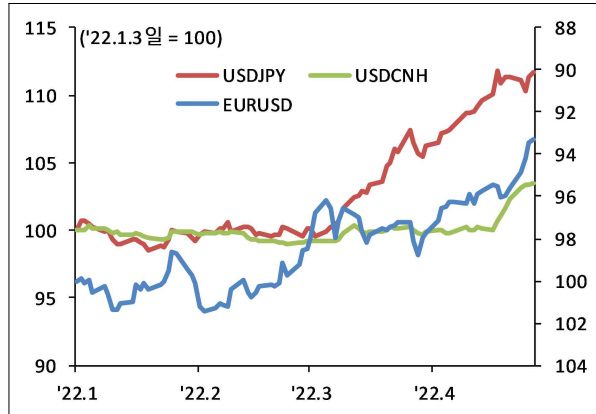
- (국내 동향)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72원(4.28일)을 돌파하며 '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4월초 1,212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상(1.25%→1.50%, 4.14), 기재부 장관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조치 확대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상승
 - 4월말 미 기업의 양호한 실적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루만에 나스닥 지수가 3.95% 하락(4.27일)하는 등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이 1,272원(4.28일)을 돌파
-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VIX지수는 4.1일 19.63에서 4.26일 33.52로 70.8% 상승, 라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시 최고치 수준('22.3.7일 36.45)에 근접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주요 통화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주 : '22.1.3일자 환율을 100으로 환산, EURUSD는 역축

- (전망) 5월에도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 중국의 지역 봉쇄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와 공급망 회복 지연 우려 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기존 금리 인상이 2년('04~'06년)에 걸쳐 0.25bp씩 점진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에 비해 금번 금리 인상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 5월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환율 추이

	'20년말	'21년말	'22.3월말	'22.4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086.3	1,188.8	1,212.1	1,255.9	+3.61%
달러 인덱스	89.927	96.141	98.353	103.212	+4.94%
달러/유로	1.2217	1.131	1.107	1.054	△4.79%
엔/달러	103.26	114.82	121.68	129.82	+6.69%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4월 주요국 장기금리는 통화긴축 강화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5월에는 미 연준의 빅스텝 실현 가능성에 따라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

○ (동향) 4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세(금리상승)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물가지표** 고공행진 영향으로 상승하여 월말 2.9%대에서 마감

* 4.18일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75bp 인상 가능성 언급, 파월의장은 4.21일 IMF 연석회담에서 5월 FOMC에서 50bp 인상 논의 예정을 밝힘

**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 전년대비 8.5%↑ (2월: 7.9%)
3월 미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 : 전년대비 6.6%↑ (2월: 6.3%)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와 더불어 ECB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확대* 등에 따라 상승

* 4.14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결정 변화는 없었으나,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 위험이 커졌으며 6월 회의의 정책결정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

- 일본 국채 10년물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으나, BOJ의 수익률 곡선 관리정책*(YCC: Yield Curve Control)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

* 장기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며 BOJ가 설정한 변동범위(±0.25%) 상한에 근접함에 따라 4.20일 지정된 금리에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지정가 오퍼레이션 실시

○ (전망) 5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큰 폭 인상 실현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5월 FOMC 이후 기준금리 고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적긴축 시작 및 6월까지 빅스텝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채권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CME Fed Fund Rate 선물 가격에 반영된 5월 FOMC의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은 94.8%, 6월 75bp 인상 확률은 80% ('22.04.27 기준)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20년말	'21년말	'22.3월말	'22.4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0.9132	1.5101	2.3380	2.9336	+59.56bp
독일채 10y	-0.5690	-0.1770	0.5480	0.9380	+39.00bp
일본채 10y	0.0210	0.0710	0.2200	0.2300	+1.0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4월 주요국 증시는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 등에 따른 등락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주요국의 긴축 및 경기 방향성 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

- (동향) 4월 주요국 증시는 1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며, 월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하락 마감
 - 미 증시는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악화
 - * GE, 3M 등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불안 등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난망을 내비춰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 일제히 주가 하락
 - 유로Stoxx50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되며 약세
 - *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지수(소비자 지출 예측 선행지수, 기준치=0)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저 수준에 근접 ('20.4월 -22.7 → '22.1월 -8.5 → 3월 -18.7)
 - Nikkei225는 엔저에 따른 수출회복 기대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우세하며 하락 마감

- (전망) 5월 주요국 증시는 미 FOMC 결과 등 주요국의 긴축 및 경기 방향성 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잇따른 가운데 미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
 - * IMF 4.4%('22.1)→3.6%('22.4), World Bank 4.1%('22.1)→3.2%('22.4)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및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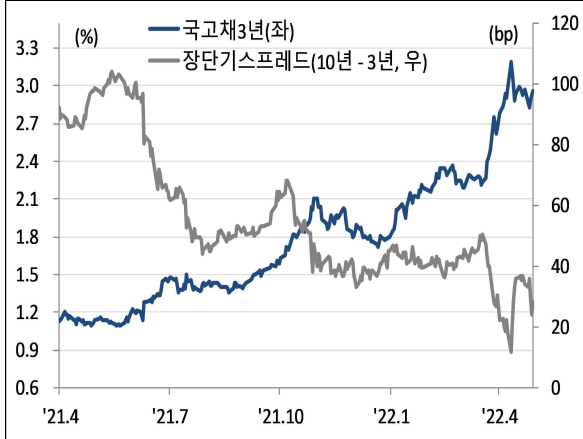
	'20년말	'21.12월말	'22.3월말	'22.4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30,606.48	36,338.30	34,678.35	32,977.21	△4.91%
유로 Stoxx 50	3,552.64	4,298.41	3,902.52	3,802.86	△2.55%
Nikkei 225	27,444.17	28,791.71	27,821.43	26,847.90	△3.50%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천경원, 금리·주가 - 장명화)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2.958% (1.3bp ↓), 신용스프레드 73.3bp (3.5bp ↑)



환율 원/달러 1,255.9원 (16.8원 ↑), 엔/달러 129.82엔 (1.34엔 ↑)



주가 코스피 2,695.05pt (0.36% ↓), 코스닥지수 904.75pt (1.95%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75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